

다는 것이다。(全北大博物館金鍾太誌) (十一月號考美) 스 「全北雲峰에서 銀製冠具出土」의 雲峰은 誤記 南原으로 訂正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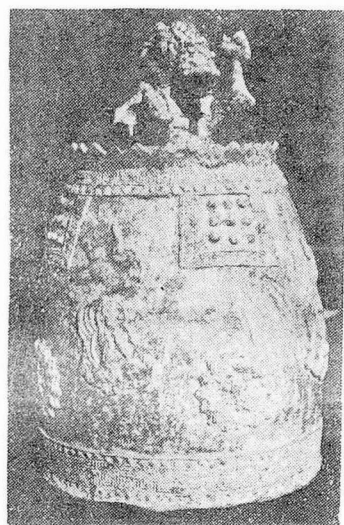
三川寺골發見 靑銅梵鍾 及 一括遺物

鄭 良 謨

昨年十一月初에 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津寬內里 윤경민씨 집에서 집을 늘이기 위하여 부엌바닥을 파다가 靑銅鍾을 包含한 一括遺物을 發見申告되어 왔기로 이에 紹介하여 두고자 한다.

北漢山一帶에는 古刹이 洞壑과 溪谷마다 자리를 잡고 그 北側인 高陽郡 神道面 쪽에도 많은 寺刹址가 尙存하고 있다. 其中에도 津寬內里의 三川寺골에는 거의 山頂에 位置한 三川寺址①를 爲始하여 山中下의 磨崖佛立像②等 골짜기마다 大小의 佛蹟이 無數히 남아 있다.

磨崖佛立像이 있는 곳에서 溪流를 따라 내려오면 左右가 가파른 山谷인데 漸次 溪流가 넓어지면서 (近年에 여기 물을 막아 「물」을 만들었다) 右側에 적은 언덕이 가로 막히고 언덕 넘어 比較的 넓직한 곳이 있다. 몇해전부터 이곳이 유원지화하여 (磨崖佛위의 自然巨石을 破壞하여 採石場도 되고 있음) 石場들이 여러채 들어



서 있다. 筆者는 이곳을 누차 다니면서 여기 버젓한 伽藍이 들어 섰을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遺物이 發見된 곳은 여기 넓직한 대지의 제일 윗부분에

該當하는 곳으로서 麗代 伽藍址의 一部였다고 생각한다.

梵鍾·이 鍾은 典型的인 麗代의 것으로 全體의 比例가 快速하고 鍾身의 曲線의 흐름이 아름다운 完美한 鍾이다. 頂部는 龍鈕를 結하고 甬筒을 갖추었으며 龍은 입에 如意珠를 물고 다시 四瓜의 左尾를 머리 앞으로 치켜들여 또 하나의 如意珠를 받치고 있다. 髮焰은 양 어깨에서 위로 향하여 甬筒上部까지 뻗었으며 他例와 달리 예쁜 唐草文樣을 하고 있다. (龍의 등어리엔 鍾을 달았던 쇠고리의 일부가 녹슬은 채 남아 있다) 甬筒은 위에 五珠를 받치고 있으며 甬身은 三區로 나누어 唐草文을 陽鑄하였다. 이 頂部는 鍾身에 比하여 녹슬어 마멸이 심하여 表面이 거의 剥落되어 細部가 不明함은 甚히 遺憾스럽다.

鍾身은 肩部에 如意頭文의 立華形을 두르고, 肩帶와 口帶를 갖추었고 肩帶에 붙여 四乳廓을 配하고 乳廓의 사이 사이에 四飛天을, 乳廓의 밑에는 四個의 撞座를 配置하였다. 立華形의 如意頭文은 故全鑿弼氏所藏靑磁象嵌雲鶴文梅瓶③의 肩部에 둘러진 白象嵌의 如意頭文과 거의 같은 양식을 하고 있다. 口帶와 肩帶는 雷文을 主文으로 두르고 雷文의 上下面 連珠文帶를 두었는데 肩帶上部에는 連珠文이 없으며 口帶의 雷文 사이 사이에 斷片的인 雲文같은 것이 三個所에 들어 있다. 乳廓은 九乳를 內包하고 外廓은 雷文으로 되어 있으며 雷文 周圍에 連珠文은 없다. 飛天은 蓮華座에 跏坐한 菩薩形으로 身光과 頭光을 갖추었다. 撞座는 周圍의 花瓣이 重瓣의 如意頭文으로 되었으며 中心部는 寶相華文으로 되었고 如意頭花瓣內에 하나 하나 다시 忍冬文이 陽鑄되었다. 甬筒과 鍾身은 맞닿았으며 鍾身口緣의 두께는 一·七cm로 두툼하다가 차차 위로 올라 갈수록 얇아져서 예쁜 曲線을 그리고 있다.

이 鍾은 朝鮮鍾의 通式을 들어낸 高麗鍾으로서 全體比例의 調和와 鍾身의 曲線美、특히 立華形 如意頭樣式에서 十二世紀後半에서 十三世紀前半에 걸치는 作品이 아닌가 추정된다.

靑銅淨瓶·淨瓶의 一般通式을 따르고 있으며 頂部의 긴 圓筒은 九面을 이루고 있고 肩部의 注口는 넓어져 있는데 口緣에 마개를 붙였던 배목자리가 있다. 九面圓筒의 받침자리와 肩部에 二條의 陰刻帶緣이 있고

外反된 굽에 一條의陰刻帶線이 있다.全體가 크고 凸狀한便이며 肩胸部가 많이 깨어졌으며 肩部에는 補修해서 使用한 흔적도 있다.

青銅臺付鉢·器身은 直立的인데 口緣의 外反이 없이 거의 直立하고 口緣의 上面은 비스듬히 모지다가 外面은 말려 붙쳐서 마감했다. 굽은 높직하고 밑에 一條의陰刻帶線이 있다.臺와 器身은 他例에서 흔히 보는 器身과 臺를 따로 만들어 붙친 것이 아니고 一鑄한 것 같다.

鍾高二七·一cm 甬筒高七·五cm 口徑一六·九cm 肩幅一一·〇cm
淨瓶高四一·五cm 九面圓筒高一·五cm 底徑一〇·三cm
鉢高一〇·五cm 口徑一四·五cm 底徑八·四cm 臺高一二·三cm

註

① 「三角山 三川寺 大智國師碑」 崔淳雨 美術資料第十號 一九六五年十二月 國立博物館

② 「三川寺入口磨崖如來立像」 鄭明鎬 考古美術二卷五號 一九六一年五月 考古美術同人會

③ 「青磁象嵌雲鶴文梅瓶」 國寶圖鑑一三三頁(圖版及解說) 一九五八年 國立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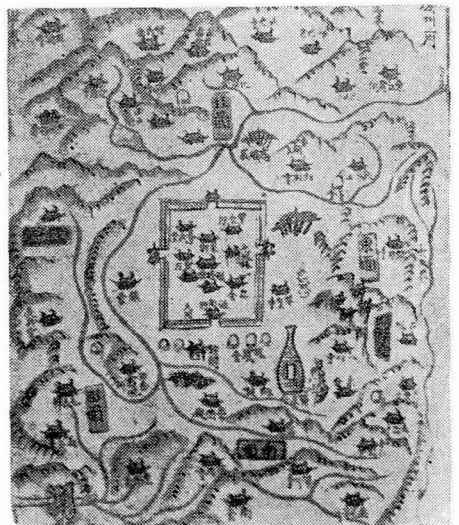
葆華閣所藏의 「小華輿圖」

全 曠 雨

先考의 蒐集品整理의 一環으로 葆華閣所藏漢籍目錄의 出版準備作業中 許多한 善本과 더불어 多數의 地理學上 重要한 資料가 될 地圖類가 보여 其中 하나인 「小華輿圖」를 여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本 「小華輿圖」는 一匣五冊 總三三八面으로 各冊을 木, 火, 土, 金, 水로 分類하여 第一冊에는 慶尙道, 二冊에는 全羅道 三冊에는 京畿道, 忠清道 四冊에는 黃海道, 平安道 五冊에는 江原道, 咸鏡道를 各各 收錄 全八道를 道別로 細密하게 그려 보였고 各道 卷頭에는 該當道의 全圖를 넣고 그後에 그道에 屬하는 牧, 府, 縣의 各圖를 收錄하고 있다.

第九卷 第一號 通卷九十號



各冊의 크기는 縱 橫이 各各 一六·五 cm 一七·一cm 로서 紙質은 매우 敦厚한 韓紙이며 變形된 蓮花唐草文바탕의 黃褐色 表紙로 아담하게 裝幀되었다. 每半葉마다 比較的인 鮮明한 墨描위에 山勢는 靑色으로 濃淡을 設드려 立體感있게 設

彩하였으며 各主要地名은 黃, 赤의 바탕위에 各各 表記하였고 重要 建物及 遺構와 遺蹟을 또한 纖細한 筆致로 一目瞭然하게 圖錄하고 있어 비 作者는 未詳이라 하더라도 非凡한 高手의 솜씨임을 直感할 수 있다. 本輿圖는 郡治를 中心으로 하여 山川, 島嶼, 堤堰, 池澤, 橋梁等을 表記하고 城郭 官衙 鄉校 獄樓臺 寺刹 塔婆 書院 驛舍 倉陵墓等 要所 要所의 名所를 詳細히 收錄 繪圖하고 있어 距今 날로 湮滅되어 가는 全國各地의 名勝遺蹟을 傳示하여 줄에 있어 크나큰 도움이라 하겠다. 특히 京畿道 忠清道의 一冊에는 各郡縣圖의 欄頭에 郡縣名과 그 古號及 서 울에의 里數와 日程 面數 戶數 帳付結數 그리고 軍額 書院 倉 津 烽 驛 驛馬 等의 數를 仔細히 記錄하고 있어 史料로서의 價値를 한층더 加해 주고 있다.

이의 一例로 本輿圖中 慶州府圖에 보면 骨窟과 石窟이라 하여 두個의 建物이 보이는 바 이는 筆者가 紹介한 바 있는 謙齋書嶠南名勝帖의 慶州骨窟石窟圖 考古美術 第五卷 第二號 參照)와 더불어 더욱 慶州石窟에 있어서 前室存在의 可能性을 示唆해 주고 있다.

또한 本輿圖는 金正浩의 大東輿地圖가 鄭尙驥의 東國大地圖 等과 比較하여 볼때 이는 縮尺方野式의 形態는 아니나 그 地形의 位置와 距離